

마 × 마한
기부
1st
“ANNIVERSARY”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수상작 소개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만만한 기부 후원자와 수혜학생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모전 참여수기 중 발췌)

김병선 후원자 /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 2기

나에 대한 성찰이 저를 크게 성장 시킬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미소가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는 행복이란 큰 파도를 몰고 오리라는 희망찬 기대를 품습니다.

문소정 후원자 / 여성연구소 책임 연구원

세상에 빚지고는 못산다 하더니 이순의 나이에 이르러 만만한 미생이 만만한 기부를 통해서 만만하게 학은의 빛을 갹게 되니 참 출가분하다.

이상래 후원자 / 본교 학부모

내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장학금으로 내면서, 이것이 작은 사랑의 씨가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진합태산을 이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작은 일인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작은 돈을 기부하는 저에게 달마다 문자 메시지를 넣어주고, 때로 선물도 주며 과분하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기회를 준 서울대학교에 감사합니다.



정의조 후원자 / 수의학과 68년 졸업

나는 평소 장학 사업에 관심이 많아 적극 참여 하고 싶었지만 가용
재원 이라고는 100여만 원의 연금이 전부 이기에 그저 속만 태우고
있던 중 대학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게 되었습니다.

신재용 장학생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선한 인재 장학금은 이루고 싶은 것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할
뻔한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감사함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지현 장학생 / 음악대학 작곡과

선한 인재 장학금이 장차 우리 사회의 아픈 면모를 보듬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의 시작이자,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선한 인재로
자라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장학생 /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홍진우’의 인생은 저 홀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부자 선배님들의 지지와 격려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 선한 인재가 되라는 기부자 선배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66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힘이 됩니다. 99



1명의 만원이 모이면

천원의 식사 10번: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생회관 식당에서 천원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10명의 만원이 모이면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16시간

10,000명의 만원이 모이면

선한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



66 이렇게 사용합니다. 99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850명

만만한 기부를 통해 전해주시는 후원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약 850명의 학생 전원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66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9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1666-2930 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팩스, 우편,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MMS: 1666-2930

Tel: 02-880-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URL: www.snu.or.kr

서울대학교발전기금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 본관(940동) 2층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만만한 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장학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는 170여분의
서울대학교 가족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전해 받은 감사의 뜻을 이어주신
기부자님, 고국과 모교를 그리워하며
멀리 미국에서 참여해주신 동문님,
고향을 떠나 홀로 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담긴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편지

김용재 장학생 / 인문대학 종교학과 석사과정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꺼내 들던 책이 있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준다. 그리고는 아무 것도 묻거나 재촉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의 가능성이 꽃처럼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묵묵히 기다린다. 이것은 소설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내가 처음 그 분의 도움을 받은 것은 2012년도 2학기였다. 우연한 계기로 장학금을 알게되어 반신반의하며 신청을 해 두었는데 덜컥 선정이 되었다. 성적이 그리 우수한 편이 아니었기에 선정이 된 후에 의아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나는 너무도 철이 없었다. 누가 내게 이런 큰 도움을 준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돈을 받게 된 것이라 여겼다. 나는 나밖에 몰랐다. 장학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했다.

그 뒤로 계속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처럼 주어진 장학금으로 나는 경제적 부담감을 완전히 덜어놓고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기에 졸업을 앞두고 내 앞에 펼쳐질 불투명한 가능성들을 더듬으며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지새운 밤들이 적지 않았다. 원래 음악대학 작곡과 학생이었기에 당연히 동대학원 진학을 고려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음악을 하면서도 늘 책을 더 좋아했었다. 종교와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두 개의 창이라는 생각에 음악을 하면서도 종교학을 복수전공할 정도였다. 고민 끝에 종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예술과 종교를 통해 나와 타인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학부 졸업 뒤로는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고, 수소문해보니 많은 장학금은 이공계 쪽에 집중되어 있거나 학부생만을 위한 것이었다. 공부를 더 하려면 장학금이 필요했지만 인문대 석사를 위한 장학금을 찾기가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염치없게도 내게 학부 장학금을 주셨던 분에게 편지를 써서 장학금을 다시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편지지를 사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 그제서야 나는 내게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묻거나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장학금을 주신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고 그 분이 걸어오신 길과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다. 심지어 책도 있었다. 놀랍게도 그 분과의 인연의 시작은 2012년이 아니라, 내가 입학했던 2010년부터였다. 모든 지방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지은 '충북학사'라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쾌적한 시설과 훌륭한 식사가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었다. 바로 이 기숙사의 건립에 그분의 큰 힘이 있었다.

그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하신 수많은 좋은 일들에 존경심이 생기는 동시에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수년간 큰 도움을 받아 놓고도 내게 도움을 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그 분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염치없게 한 번 더 장학금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였다. 나밖에 몰랐던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장학금을 내놓는다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지만 쉽지 않은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보내고 얼마 뒤 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도서관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2016년에 대학원에 입학한 뒤에도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내가 관심가지던 주제들을 다른 걱정 없이 탐구할 수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마지막 학기를 맞게 되었다. 2017년 8월 25일 마지막 장학수여식에 참석했다. 학부에서 석사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장학금을 받았던 일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장학금을 받게 된건 지금 생각 해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를 쓰면서 수년간 큰 금액을 받고 지원해주신 그 분에 대한 감사함과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수여식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어 앞으로 나가서 그 분에게 예쁜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전해드렸다. 미소를 띠시며 짧게 “고마워” 하시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편지를 꺼내 읽으시는 모습을 보니, 보잘것없는 편지와 꽃으로나마 내가 느낀 한없는 감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장 지오노가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고 썼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 해 동안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기심에서 벗어난 고결한 베풀을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해 오신 그 분과의 인연은 분명 “잊을 수 없는 한 인격”과의 만남인 셈이다.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 편지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앞으로 내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나는 내게 되묻게 된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이었는가? 절대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철부지였으니. 하지만 그러한 인격과의 만남을 경험한 뒤 나 역시 감히 그를 닮아가기를 조금씩 꿈꾸게 되었다.

묵묵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나무를 심어 황야를 아름다운 숲으로 바꾼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어 그들이 경제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게 했던 임광수 회장님처럼, 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인격”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렵지만 가슴에 품기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이제는 내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다.

장려상

이어지는 축복의 고리

한옥희 후원자 /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83년 졸업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대학원을 다닐 때, 꽤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교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관심 있는 공연이 있는 날에 참석하곤 했다. 연회비를 낼 만큼의 여유는 없어서 당일에 줄서서 남은 표를 사곤 했는데, 어느 날 내 차례가 오니 직원이 “어느 분이 당신에게 이 좌석 표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며 공짜 표를 주는 것 아닌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아주 좋은 좌석 표를 선물한 것이다. 그 때만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미국에서 차를 몰고 중부에서 동부로 이사 갈 때, 차들이 끊임 없이 와서 진입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서서 트럭의 뒤에서 오던 차들도 가지 못하게 막아 주는 것 아닌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배려심을 느낄 수 있어서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하다.

한국에 돌아와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를 한 20년 쯤 하였을 때였던가, 어느 날 갑자기 위에 이야기한 것들이 떠오르며, 사실은 훨씬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 왔다는 생각이 불현 듯 났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신이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기에, 장학금을 받은 것은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과연 나는 내가 잘 해서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은 것인가? 장학금마다 장학생 선정 조건들이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장학금을 주시며 내게 심었던 씨앗이 수 십 년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트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다시 다음 세대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그 분들은 아셨을까? 내 자신이 기부를 고려했을 때는, 수혜자였으니 이제 더 늦기 전에 돌려주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찾아보다가, 이왕이면 후속 세대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장학금 지급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보니 싹이 트는데도 수 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이 방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씨를 뿌리면 다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새와 벌레에 먹히고, 일부는 죽지 않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통해서 다른 행위와 비교 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는 경험은,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사랑을 하거나 기부를 할 때 더 희열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진화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내가 장학금을 받은 것은 그럴 자격과 능력이 되어서라기보다 서로 돕는 인간 사회의 구조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의 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재능과 물질적 소유물들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은 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보다는 인류 사회에 잘 사용하라고 맡겨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철없이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은 순간 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좀 더 누리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가 심은 씨앗의 열매로 내가 살아왔으며, 내가 심은 씨앗으로 인해 누군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의 씨앗이 또 뿌려지는 이러한 생명의 고리가 계속될 것을 믿기에, 동시에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면서 이미 자유와 행복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 전체 수상작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nu.or.kr

